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2호 【루게 제 24910호】 주제104(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하자

사회주의협동농에 모내기철이 왔다. 지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전체 인민들은 조국해방 일흔둘과 당창건 일흔둘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모내기전투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선의 제1세대 제1선창호이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과 경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알뜰생산이 단순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키는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사회주의는 그떡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설있게 해 나갈수 있다.

올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여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도 화답하고 당의 부름이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 톨숨 서슴없이 내내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풍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를 잘 지어 당조직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우리 사회주의의 필승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뜻깊은 올해에 알뜰생산을 결정적

으로 높이자면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모내기는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다. 풍요한 가을은 모내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야 논벼 고장수확과 고수확을 높일수 있으며 나아가서 당이 제시한 알뜰생산목표를 집행할수 있다. 오늘의 모내기전투야말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결구한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모내기전투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올해의 모내기는 레년에 없이 일어난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계속되는 가을로 하여 나라의 물자원이 심히 줄어들어 모내기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서해북방지대의 하나인 황해남도만 놓고봐도 보 조수원까지 합하여 모내기에 쓸 물이 대단히 적다. 이런 조건에서 물결약형농법인 비영양단지모에 의한 제배면적을 전적으로 60%이상 늘리고 마른상태에서 땅을 파고 모를 낸 후 포기포기 물을 주면서 모내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주의협동농 어디서나 시기를 다루는 모내기전투에 어느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참다운 동지, 전우가 될 충성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 할 굳은 각오와 승고한 공민적자각,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모내기전투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농업전선에 올해 알뜰고지정령을 위한 총공격구령이 내렸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안고 총공격적인 열 앞장에서 용감하게 달려나가야 한다.

모내기철의 하루하루는 다른 때의 열흘, 백날맞잡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락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 매일매일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항일의 나날 피어린 격전속에서도 발을 갈고 씨를 뿌려 유격대에 식량을 보내준 소할알한알의 쌀을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키는 총공격으로 여기고 원수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모내기전투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모내기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배천군에서 비영양단지모배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지난 시기보다 정보당 물소비량의 30%를 줄이면 서도 모내기결과와 같은 수확량을 최 고수확년도보다 700여%의 알뜰을 더 생산한 비결이 바로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데 있다.

최악의 왕가들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물문제해결이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협동농장에서는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모내기성과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농기계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트랙트르운전수들은 기계화 초병된 공지를 안고 기대적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마른논씨매치기를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안악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비영양단지모에 의한 모내기를 기계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 농기구를 만조되도록 모든 시, 군, 구, 협동농장, 협동농장기계화사업반, 수리분조들에서 이미 있던 모내는기계를 개조하고 더 많은 농기구를

을 새로 만들어 적극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분조관리를 창조하신 50년이 되는 해이다. 농업근로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공이 되어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의 요구대로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옮겨 적용하여 그것이 모내기전투에서 온이 나게 하여야 한다. 지난해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700여정보에 대한 논씨매치기를 열흘동안에, 한달동안 진행하던 모내기를 한주일동안에 와닫 같은 비결의 하나가 바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기계, 농사조건을 먼저 보기 전에 계획을 믿고 주인다운 일본새로 결사전을 벌인데 있다.

모내기성과는 전적으로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농업전선에서는 아래단위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정악하고 도, 시, 군들의 모내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물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일관하여 협동농장에서 모든 농사

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물보장조건이 좋고 이른큰모와 영양맹상모, 영양알모, 영양단지모를 도입하는 시, 군의 농장들에서는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닫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공이 되어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의 요구대로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모내기용물이 최대로 긴장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물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일관하여 협동농장에서 모든 농사

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물보장조건이 좋고 이른큰모와 영양맹상모, 영양알모, 영양단지모를 도입하는 시, 군의 농장들에서는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닫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공이 되어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의 요구대로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모내기용물이 최대로 긴장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들격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약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넓은 틀과 형식주의에 메인 정치사업이 아니라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이 권위적인 정치사업을 요구하고있다.

도,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농장방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모내기전투를 당적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농장일군들이 신심을 가지고 모내기전투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떠밀어주어야 한다.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는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도록 농기계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영농물자를 제때에 집중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농촌을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모내기용물이 최대로 긴장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회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들에 유급적으로 관개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명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양과대의 건설사업사업소 지면내 계획은 공사 첫날부터 전투현장에서 이신작적의 사업기풍과 힘있는 지원으로 과충판과 자연박물관건설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릉래의건설사업사업소 기사장 허은성은 건설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확신적으로 제기하여 하면서 통이 큰 후방사업

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부원 리명철, 직장장 우영춘도 천년철의, 만년보존의 애국의 일념안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해가고있는 전투원들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갔다. 평양시인민보안군 교통지휘대 인민보안원들은 나라의 재부이며 선군시대와 더불어 같이 전해질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점인 중앙동물원을 더 잘 구할수 있게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여온 유원지총국 산하단위 부원 오윤희는 중앙동물원개건공사장에도 많은 건설자재들을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안영일은 혁신의 불길높이 위훈을 창조해가는 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영광의 일에서 일하는 궁지을 안고 중앙동물원 로동자들인 김향, 지방성, 로은정은 맑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의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근로자들은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활짝 꽃피우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11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업과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통산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책을 펼치시어 우리 청년들을 혁명적이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를 지닌 당의 믿음직한 정치후배,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로 억세게 키워 주신 백두산철새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들이 적혀져있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청년운동방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추추면서 깊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청년정치의 불꽃의 기개를 남김없이 파시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본사기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동지께서

### 고 김격식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하역 1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특군대장 김격식 보내시었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 로씨야 방문을 마치고 귀국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일행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11일 특별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국제기게대에는 공화국기가 나뭇기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비행장에 서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리경성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르비치

【모스크바 5월 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8일 크레믈린대궁전에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르비치 부원 로씨야

련방 대통령을 만났다.

석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르비치 부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김영남동지가 전하였다.

부원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원대통령에게 보내신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부원대통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서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김영남동지와 부원대통령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조로친선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거창한 창조의 회성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

## 단숨에의 기상은 우리의 표대

축성전역에 격동의 시간과 날이 흐른다.  
 솟구치는 벽체마다 두텁게 나뭇잎과 건물주변에서 무성하게 울려 퍼지는 기체회수관들...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내세우는 건설장은 그야말로 선군조선의 문명인 레일이 어떻게 앞당겨지는가를 보여주는 속도로 되고있다.  
 무수한 철근들이 세워지고 수만대의 강판발들로 둘러싸인채 만장충을 향해 킬을 솟구치는 과학기술전당은 지금 곡선을 이룬 원자구조모양의 형성안그대로 그 용자가 확연히 드러나고있다.  
 거창한 대건설전투가 벌어지는 이곳에서 공사에 참가하는 군인건설자들은 걸음마다 어떤 비상한 창조정신을 발휘하고있는 것인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적의 기수, 주력군단적의 선군의 혁명적대고전에서 선도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건설장에

찾아오시어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은 과학기술전당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승리의 표대를 세워주었다.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이고 승리이다.  
 모두가 1년여간 강산이 변화해 가는 단숨에의 기상을 떨칠 의지와 뜻을 품고있었다. 이 중정의 일념에 떠날때마다 축성에서 거창한 창조의 회성이 울려 퍼진 나날은 불꽃 수심일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부대장병들은 과학기술전당 총괄공사량의 70%를 건설을 돌파하는 혁혁한 위업을 이룩해 주었다.  
 불꽃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긴급히 필요한것은 1만 5천여톤의 휘발유용목재와 10만여톤의 철근을 강판발대였다. 그뿐이 아니다.  
 20여대의 수직승강기와 수심대의 혼합기를, 작업능력이 큰 기중기들...  
 그렇듯 방대한 건설기기와 공사자재가 최단기간에 전량 보장

될수 있다는 담보도 없었다. 하지만 어려운 공사를 대상별, 날자별로 드림없이 수행할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다. 령도자의 믿음을 받아안은 병사들은 마땅히 당에서 중시하는 건설사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해야 한다는것이 이들의 불같은 일념이었다.  
 그것이 선군시대 병사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기에는 이들은 공사목표부터 톤이 크게 내세웠지만, 배부른 배를 가진 단숨에의 기상이 온 건설장에 나뭇잎 산더미처럼 쌓였던 문제는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매일같이 한개 열차편성분에 달하는 세멘트가 소비되였다.  
 부대적으로 혁신적인 방도를 탐구도입하는 전투도 맹렬하게 벌어졌다. 지휘관들이 해당 단위 기술자들과 새로운 강판발치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정에 모의시험이 거듭 진행되였다. 결과적인 거대량을 가지고도 공사를 추진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가 나오고 실천에 도 임하였던가. 그런 속에서도 건설속도는 의연히 더디었다.

공사량이 너무도 방대하고 건물의 층고가 높아감에 따라 발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것이였다.  
 축성전역에서는 사소한 침체도 있을수 없다.  
 이런 의지가 온 건설장에 차고넘치는 속에 난관들과를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방수선전차에 의한 선동이 고조되는 속에 시공단위별로 하루 밤사이에 경사발판들이 설치되고 부대장병들이 무거운 짐들을 두어개에 메고나섰다. 지휘관들도 병사들과 한숨이 되어 연공작업을 비롯한 모든 공정수행의 앞장에서 내달린 그 나날 산더미처럼 쌓였던 문제는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매일같이 한개 열차편성분에 달하는 세멘트가 소비되였다.  
 부대적으로 혁신적인 방도를 탐구도입하는 전투도 맹렬하게 벌어졌다. 지휘관들이 해당 단위 기술자들과 새로운 강판발치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정에 모의시험이 거듭 진행되였다. 결과적인 거대량을 가지고도 공사를 추진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가 나오고 실천에 도 임하였던가. 그런 속에서도 건설속도는 의연히 더디었다.

없이 추진할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일부 구획을 맡은 단위들에서 불꽃공사를 결속하는 비상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보람찬 그 나날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현장을 뜨지 않고 하나하나의 공정들을 치차처럼 맞물리기 위해 지상과 공중의 능수로 자랑떨친 기술들은 열마였으며 몸이 지쳐 쓰러지면서도 오직 공사계획수행만을 생각하며 전진하는 대오와 박동을 함께 한 위훈자들은 또 임하였던가.  
 축성전역은 조국수호의 결건정사이다.  
 만장충을 승리의 고지처럼 여기고 시간을 앞당기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이런 결사투쟁의 불같은 정신력에 의해 보기에 도 웅장한 새 건물의 골격은 지금 대공장의 푸른 물결이 우렁치 않게 울리고있다.  
 당의 부름이리만 몰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배부른 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더 불어 과학기술전당은 머지않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첨단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 원 철

## 평양시건설관리국 아래 여러 단위에서

평양시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맡은 축성인이다 리-3 건설장에서 어떤 다면적 가락이공사는 단 36시간동안에 결속되고 침강정공사와 함께 다 리상관공사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건설장적인 하부공사를 맡아 수행하면서 방대한 량의 다리공사를 리듬적으로 추진하는 이곳 건설자들에게는 해공사를 기한전에 끝낼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있다.  
 축성전역은 조국수호의 결건정사이다.  
 만장충을 승리의 고지처럼 여기고 시간을 앞당기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이런 결사투쟁의 불같은 정신력에 의해 보기에 도 웅장한 새 건물의 골격은 지금 대공장의 푸른 물결이 우렁치 않게 울리고있다.  
 당의 부름이리만 몰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배부른 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더 불어 과학기술전당은 머지않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첨단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 원 철

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완성하면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새 공법들을 탐구하고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침강정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벌어지던 때 그 안에서 차오르는 물량은 시간당 1000여m³에 달하였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건설자들과 마구잡이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했다. 현실은 훌륭한 학교였고 대공장은 선생이었다. 그들속에서 적지 않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중에서도 현재 리용하는 굴착기 바가지를 개조하여 물이 들어차서 조건에 구애없이 굴착공사를 추진하는 의견이 골방하고 혁신적이였다.  
 현장에서 즉시에 굴착기바가지 개조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어 공사실현에 도입되였다. 이렇게 되어 그처럼 어렵던 침강정공사는 불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게 되었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기발한 착상과 일본새로 건설속도를 높여나간 실례는 그뿐이 아니다.  
 기동공사가 마감될 때 이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평양시 건설을 위한 1500여m²의 콘크리트

혼합물을 받쳐줄수 있는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버팀목이 세워질 지반도 든든해야 했고 현장이 비좁아 증기제들을 리용하기도 어려웠다.  
 적은 목재를 가지고 공사를 진척시킬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이 기술자들과 논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한가지 안이 나왔다. 다리상관을 떠받들 버팀목을 늘려서 쌓기 말고 대담하게 세워보자는 것이였다. 문제는 다리상관의 중량을 버팀목이 받아낼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여기서도 기발한 착상이 나와 공사에 적용되였다.  
 하부공사를 위해 미리 준비한 목재를 깔고 그 위에 버팀목을 세우면 침하현상을 없앨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창조적지혜를 합친 결과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다리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공사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혁신적인 공법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은 비상한 공사속도를 낳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전 혁 철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승리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놔둡니다.』  
 알고보니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대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 실리보장방도도 구체적인 현실에 있다

##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생산인소라면 어느 단위에서나 대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실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강경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생산인소라면 어느 단위에서나 대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실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강경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생산인소라면 어느 단위에서나 대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실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강경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생산인소라면 어느 단위에서나 대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실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강경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생산인소라면 어느 단위에서나 대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실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강경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 농장마을에 울리는 <바다 만풍가>

## 철산군 리화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철산군 리화리농동농장의 농장원들이 지난해부터 바다에 자리잡고있는 덕을 특특히 보고있다. 수산분조에서 수확한 많은 수산물들이 여러차례 걸쳐 농장원세대들에 공급되고 농장의 발전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행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행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두해전 1월 리당비서로 사업하게 된 최정철동무는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실례를 료해하였다.  
 많은 문제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것은 수산분조가 있으면서도 농장원들이 그 덕을 보지 못하고있는 사실이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바다를 건 험동들에서 바다를 리용하여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해서 농장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이 문제를 리당위원들이 찾아내고 풀리라.)  
 그의 이런 결심은 농장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리당위원장 김용환, 기사장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생산인소라면 어느 단위에서나 대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실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강경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생산인소라면 어느 단위에서나 대공정별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실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강경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